

건설교통부 김창섭 경제국장 초청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 간담회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는 위장직영을  
하는 일반건설업자를 합법화하는 제도

**설비 및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12월 12일 전문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승일 회장과 박종학 부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장을 회장을 비롯하여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부 김창섭 경제국장을 초청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교부 도태호 경제과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직접시공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는



정승일 회장과 박종학 부회장이 설비건설업계 현안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몇 년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 정승일 회장은 「현행과 같이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시장을 사실상 봉쇄한 채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할 경우 위장직영을 하는 일반건설업자를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의 선진외국처럼 '직접 일을 하는 자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여 직접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공종을 100% 분리발주한다」면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한제도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승일 회장은 직접시공제 도입에 대하여「현 건설생산체계에서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고 거꾸로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을 부정하고 위장직영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박종학 부회장은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도를 폐지할 경우 일반건설업자는 시공참여자를 통한 위장직영과 무면허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할 것이며, 이로 인한 전문건설업의 물량이 대폭 감소되어 전문건설업계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일반·전문건설업자간의 겸업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 박종학 부회장은 「분리발주금지 및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금지 등으로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시장 진출은 봉쇄한 채 직접시공을 할 수 없는 일반건설업자만이 공사를 원도급 수주하여, 이를 직접시공하게 한다면 위장직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건교부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반대했다.

